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울산광역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1 울산 전통문화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작살고래의 비밀
수상내역	2011 울산 전통문화 스토리텔링 공모전 트리트먼트 부문 우수상
작가	공지훈
분야	트리트먼트
기획의도	<p>울산이 품은 여러 전통문화들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반구대 암각화, 그 중에서도 작살이 꽂힌 고래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유영하는 고래무리였다. 위대한 유산이며, 옛 선조들의 삶을 유추 할 수 있는 "미술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한 영광이며 그 자체로서 훌륭한 콘텐츠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트리트먼트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현대 콘텐츠로 제작 될 수 있는 스토리를 채택함에 있어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그 위대한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됨은 물론 유네스코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와 그 그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모티브로하여 기획되었다.</p>

트리트먼트 우수상

작살고래의 비밀(공지훈)

■ 트리트먼트

#1. 물고기 떼죽음과 무리지어 다니는 고래.

2012년, 봄. 울산 앞바다에서 이상 현상들이 연이어 벌어진다. 인근 항에서 물고기가 종적을 감추고, 무리지어 다니는 고래들의 출몰이 잦아진 것이다. 그리고 나타났던 고래들은 곧 하나 둘씩 죽어 울산만으로 떠내려 오기 시작한다.

이런 이상 현상을 조사하던 울산서 해양조사반 경민은 밀렵꾼들의 불법 포경에 의한 현상으로 추측하고 지난 3년간 불법 포경 혐의로 끈질기게 쫓아다녔지만 매번 증거 불충분으로 체포에 실패했던 포경업자 고동래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고동래를 체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 여긴 경민은 자신이 맡고 있던 사건을 파트너에게 맡긴 채, 비밀리에 독단적인 수사에 나선다.

한편, 3년 전 반구대 암각화를 연구하기 위해 울산으로 내려온 인나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정리, 논문을 완성한다. 지난 4년간의 노력과 놀라운 사실을 접한 관련 학계와 대중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모아질 것을 상상하는 그녀의 오감은 점점 짜릿해 온다.

드디어 논문 발표일. 그녀는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진 “작살 쏜 고래”가 포경하는 장면을 형상화 한 것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내용의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한다. 잠시간의 동요 끝에 그녀가 기대했던 폭발적인 반응과는 달리 동료 학자들의 냉소와 멸시 섞인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한동안 오간 질답 끝에 분노를 참지 못한 인나는 급기야 난동을 부리게 된다. 경민과 인나의 첫 만남은 그렇게 울산 경찰서에서 이루어진다.

#2. 추적, 하지만 미궁.

독단적인 사건조사에 대한 문책으로 서 대기발령을 받은 경민은 한참 조서작성이 끝났어야 할 시간에도 불구하고 반구대 암각화와 고래, 그리고 제 3의 생명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떠들어대는 인나가 짜증스럽다.

하지만, 고래학자였던 자신의 부모님이 구해준 범고래 훈과 지난 이십 수 년 간 우정을 나눠오며 고래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가진 그였기 때문일까, 그녀의 이야기에 점점 흥미를 갖게 되는 경민. 흥미와 불신이 묘하게 뒤섞인 경민은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다 어느덧 늦은 오후를 가리키는 시계를 바라본다. 근무시간에 꼼짝없이 서에 잠혀있어야 하는 그는 퇴근 후, 다시 고동래의 뒤를 밟겠다고 계획한 터다. 고동래가 늦은 밤까지 연유를 알 수 없는 조업에

나선다는 정보를 입수한 마당에 현장만 덮칠 수 있다면 그를 잡아넣는 건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그녀를 서에서 내보내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 후, 경민은 고동래를 찾아 나선다. 조업을 마친 후, 울산만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폐가로 들어가는 고동래의 뒤를 밟은 경민은 그곳이 포경한 고래를 숨겨두는 곳임을 직감한다. 폐가를 덮쳐 고동래를 제압한 경민. 하지만 그 어디에도 포경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분명 거기에 있는 새끼고래는 포경에 의해 잡힌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죽어 떠내려 온 고래를 잡아온 것뿐이었다. 분명했다. 고래학자였던 돌아가신 부모님께 어영부영 귀동냥으로 들은 상식만으로도 알 수 있을만큼 명확한 사실이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테니 돌아가라는 고동래의 말은 그를 잡아넣지 못해 분한 경민의 성질을 오히려 돋우고 만다. 설전과 난투가 난무한 후, 어느 덧 시간은 꽤 깊은 새벽이다. 고동래가 조용히 말을 꺼낸다. 그의 이야기는 뜻밖이었다. 그의 부모가 고래로 보이는 괴 생명체의 습격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해가 되질 않았다. 고래는 무턱대고 인간을 공격하는 동물이 아니다. 그리고 고동래가 묘사한 그 고래는 아무리 생각해도 경민의 상식 밖이었다. 이상했다. 경민의 시선은 폐가의 한 벽면을 향했다. 반구대 암각화 그림이 꽤 그럴듯하게 새겨져 있다. 이때, 문득 떠오른 인나의 이야기들...

#3. 암각화와 작살고래.

고동래와 헤어진 경민은 다음날 인나와 연락을 취한다. 아직도 분에 못 이겨 씩씩대는 그녀와 퇴근 후 커피숍에서 재회하게 된 경민. 경민은 인나가 쓴 논문의 내용을 훑어 내려갔다. 내용은 이랬다. 암각화에 그려진 고래 그림들은 포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 시대의 제례의식을 통해 후세들에게 남긴 메시지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주목하는 것은 거대한 작살이 꽂힌 고래였다. 그것은 사실 고래가 아닌 고래를 닮은 제 3의 생명체이며, 암각화 속에 그려진 고래 무리는 그 작살고래와 싸우기 위해 그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형상화 했다는 내용이었다. 작살은 인간들이 고래들과 마찬가지로 그 생명체를 없애기 위해 했던 공격의 흔적이라는 주장이었다. 인간들이 고래들을 도와 제 3의 생명체를 죽이고자 했다? 하지만 이미 인간은 고래를 포경하고 있지 않았나? 굳이 고래와 힘을 합쳐 그 생명체를 죽이려 한 이유는 뭐였을까? 그 생물의 공격으로 고래가 죽어 떠 내려왔다면 당시 인간들의 포경을 위한 열악한 환경에 비추어볼 때 환영할만한 일이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그 생명체가 인간을 공격해 인명피해가 있길래도 했었던 걸까? 도무지 경민은 감이 잡히질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인나의 주장, 그리고...자신의 부모를 습격했다는 그 고래에 대한 고동래의 목격담은 묘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4.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 그리고 출항.

머리가 복잡해진 경민은 한 달에 한번 꼴로 찾는 울산 앞바다의 한 부표 앞에 배를 댄 채 기다리고 있다. 이 때, 백상아리조차 단번에 제압한다는 바다의 폭군 범고래 한 마리의 모습이 보인다. 엄청난 크기의 범고래가 하늘로 한번 치솟고는 경민을 향해 잡아먹을 듯 다가온다. 하지만 경민은 도망치지 않고 범고래를 응시한다. 얼굴에 웃음마저 띤 채로. 그 범고래는 서른 세 번째 생일을 맞은 경민의 친구, 훈이었다.

33년 전 훈이 새끼였던 시절, 큰 상처를 입고 떠내려 온 훈을 치료해 바다로 돌려보낸 것은 고래학자였던 자신의 부모님이었다. 친구가 된 훈과 경민은 그 후 벌써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달에 한번 꼭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바다 한 가운데서 조우했다.

하지만 그날의 훈은 여느 때와 사뭇 달라 보였다. 불안과 공포감에 휩싸인 듯 떨고 있는 훈의 감정을 경민은 읽을 수 있었다. 훈이의 옆구리 부근에 무언가에 긁힌 듯 커다란 상처는 경민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놓는다.

백상아리조차 피해간다는 천하의 범고래에게 상처를 낼 수 있는 건, 오직 포경선에 올라타 살기를 뿔어내는 몇몇 인간들일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포경으로 인해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민이 상처를 더 살펴볼 틈도 주지 않고 무언가에 쫓기듯 다시 경민의 곁을 떠나는 훈. 바다 속 어딘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울산 앞 바다에서 벌어지는 이상 징후들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떠내려 오는 고래 지느러미, 양식장 물고기들의 떼죽음, 평소 보이지 않던 심해어들의 시체들...울산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까지. 울산은 더 이상, 풍요로운 도시가 아니다.

#5. 제 3의 생명체, 그리고 진실

경민과 인나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두려움에 휩싸인 어부들은 그 누구도 배를 띄우려 하지 않는다.

이 때, 경민의 눈에 묵묵히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한 남자. 고동래다. 경민은 직감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운명이라는 것을.

마치 아가리를 벌린 채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와 같은 검푸른 바다가 두려운 것은 경민과 인나 모두 마찬가지였다. 다만, 망망대해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고동래의 표정만은 너무도 담담했다. 이 때, 바다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대한 고래 한 마리, 희귀하다는 흑 등고래였다. 놀라움에 경악하는 경민과 인나. 고동래만이 뭔가를 직감한 듯 분주히 움직인다. 뒤 이어 흑등고래 무리가 연달아 솟구치는 대장관이 펼쳐진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웬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보이는 흑등고래들, 잠시 후 경민과 인나는 물론 담담해 보였던 고동래의 얼굴마저 일그러진다.

고래라 부르기에...그 생물은 존재만으로도 경악스러웠다. 칼날 같은 발톱은 지느러미라 하기에 너무도 공포스러웠고, 따개비와 불가사리의 잔재로 이루어진 생물의 몸이 움직일때면 마치 거대한 바위가 덩치는 것 만큼 두려웠다. 경민이 눈을 마주친 순간, 경민의 몸은 그저 얼어붙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거대한 생물이 흑등고래 한 마리를 마치 생선 다루듯 무참히 도륙하는 찰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것 뿐...

인간이란 얼마나 미력하고 약한 존재인가...얼어붙은 온몸에서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버리는 것만 같은 이 스잔함은, 바로 절망이었다. 절망이 가져다준 무력감에 아무말도, 그 어떤것도 할 수 없는 경민의 고개를 돌리게 만든 것은....바로 훈의 휘파람 소리였다!

눈에 익은 범고래 한 마리가 거센파도를 힘차게 헤치며 다가오는 훈과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범고래의 무리. 경민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짝 쥔다. 전율과 흥분이 온몸을 녹인다. 그랬다. 그랬던 것이었다. 작살고래를 둘러싼 고래 무리의 모습. 이것은 바로 암각화에 새겨 후세에 남기고자 했던 바로 그 메시지였던 것이다. 희망, 그들은 후세에 이 희망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제 거대한 자연에서 파생된 이 돌연변이에 맞서, 경민과 인나, 고동래는 선조들이 남긴 희망의 메시지를 현실로 만드는 사투를 벌여야만 한다.

